

8월달 일본 소식을 전합니다.

여전히 무더위는 사그라지지 않는 계절에 비를 기다리는 선교사들에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리오카 사역을 마치고 7월31일 야쿠시마로 향해 떠났습니다.

야쿠시마는 작은 섬나라이며 인구는 12000명이며 교회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물건을 운송해야만 생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 했더니 태풍이 몰아치고 물건은 육지에서 들어오지 못해 마케들 안에는 물건이 텅텅비는 현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번 말씀과 요리교실을 가질수 있게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100% 미신자들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육지인 가고시마에서 작은 프로펠로 비행기를 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40분간 타고 야쿠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공항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이라고 느낄수없는 초라한 공항 이였기 때문 입니다.

무목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관광지라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이라 일본 땅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지역이라 느껴졌습니다.



기도제목

- 1) 계속 진행 되는 사역이 미신자들에게 잘 전달 되도록,
- 2) 9월달에 진행되는 신 미나또 교회, 도야마 교회, 고도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잘 전달 되도록,
- 3)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충만 하도록,

기도에 힘으로 여기 까지 온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 드립니다.

일본에서 함제임스 & 함린다 선교사 드림